



—가정복지를 위한 가족 구성원의 역할—

부부의 역할

이 소 우(서울의대 간호학과 교수)

정 의

우선 가정복지와 부부의 정의를 간략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겠다. 가정복지란 무엇이나의 정의는 '가정'에 대한 정의를 전제조건으로 풀이된 후에 설명되어져야겠지만 여기서는 부부의 역할에 그 요점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한다면 현대사회의 구조안에서 일반적으로 통하고 대다수가 생각하는 부부를 중심으로 혈연으로 맺어진 가장 적은 사회집단 형태인 가정이 환경정서, 경제 건강 제조건의 건설적인 분위기 및 가족구성원 각자가 인간의 제 속성에서 불편감과 고통이 없는 상태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함을 가정복지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부부의 정의도 초현대적 혼란속에 일부 논란이 있는데 반드시 남녀와 같이 이성간의 파트너만이 부부나 하는 것이다. 동성연애자들은 같은 성끼리 결혼하고 부부의 역할을 하므로써 부부의 전통적 정의에 반박하고 있다.

어쨌든 오늘 이 주제를 위해서 저자는 통계적 숫자에서 많은 기준으로 볼 때 정상적인 부부를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자 한다.

부부 관계

중국 사람들이 결혼하는 부부에게 제일 많이 선사하는 글귀 중에 '天作之合'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그 뜻은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꼭 자기의 짝을 만나고 싶은 것은 우연한 인연이 아니라 이미 하느님이 만드신 계획된 작업이었으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로 돕고 아끼고 사랑하며 헤어지지 말고 늘 함께 있을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 語源은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와 같은 뜻의 天生緣分이라는 말을 흔히 쓰고 있다. 또 부부의 사랑하는 관계를 비유한 '心心相印'과 '永浴愛河'라는 말이 있다. 즉 부부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도장찍듯이 맞아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고 후자는 사랑이라는 강물에 영구하게 목욕한다는 말로써 부부관계를 사랑으로 묶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본다. 미국인들이 흔히 우리가 사이좋은 부부관계를 잉꼬부부라고 비유하는데 비해 중국사람들의 비유처럼 Swimming으로 사랑을 비유하는데 사랑에 흠뻑 빠진 것을 "His heart is swimming with love"라고 하여 마치 풀장

에 빠진 것으로 비유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잘 지속되는 것은 수영을 잘 해나가는 것으로 결혼에서 만족을 느끼는 기분을 수영 후에 느끼는 성취감으로 각각 비유한다.

부부의 인간관계는 우선 그 힘에서 몇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서로의 힘이 똑같으며 대칭적으로 맞설 때와(물론 여기서 힘이라 함은 신체적 기운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 심리적 정신적 기운을 뜻한다) 질적인 면에서 평행선으로 마찰없이 가는 형과 한 쪽이 상대방을 우러러 찬사를 보내면서 의지하고 이끄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겠다. 가장 후자의 경우를 예로 보자면 아무리 몸이 약하고 집에서 가사만 돌보고 있고 전혀 가정경제 수입면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게다가 교육면에서도 훨씬 남편보다 못한 부인이라 하더라도 남편과의 관계에서 남편이 가정관리나 육아 및 장래계획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부인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있으며 부인은 “다 내탓에 남편이 잘 되고 내 복으로 우리 집안은 싹하고 아이들이 잘 된다”며 모든 것은 자신의 사주팔자가 좋아서 그렇다는 당당한 힘을 보이는 부인의 경우가 될 것이다.

둘째는 부부사이의 친숙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로 부부관계의 특징이 나타나는 경우다. 결혼속의 독신자 역할을 하는 부부관계가 각각 나의 시간을 갖어야지 하며 따로따로 취미와 관심을 갖는 경우, 서로 화제를 피하며 정신적 우월감으로 조화가 안되는 행동, 혼자서 고민할 때 불친절한 모습을 나타낼 때 등은 친숙정도가 적사 무적인 관계를 말한다. 그와 반대로 서로를 알려고 노력하고 알리려는 노력으로 모든 취미 관심이 같아지고 같이 행동하는 부부관계, 그 외 한쪽이 파트너가 무조건 마음에 맞아 자신의 동의를 고려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따라가며 한 쪽의 정열도가 강한 경우가 있겠다. 그외 정신역동적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관계로써 강박충동형 남편에 히스테리성 부인, 수동지형 남편에 능동주동형 부인, 망상형 남편에 우울형 부인, 우울형 남편에 망상형 부인, 수동지형 부

인에 능동주동형 남편 등의 관계가 있다.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던 부부는 묘하게도 잘 어울리고 부부라는 책임하에는 그 역할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본다. 이런 부부관계는 결혼생활의 역사와 그때그때 단계적 과제가 필연적 관계가 있음을 Berman과 Lief는 다음과 같이 Erikson의 설을 인용하여 보고하였다. 우선 인간이 종합적 측면에서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보고 연관시키면 18세~21세의 결혼생활에 따르는 과제는 새 가정 형성에서의 역할관이다. 이제까지는 둘째딸 노릇만 했지만 결혼에서부터는 부인의 역할, 주부의 역할로 바뀌는 것이다. 이 때 결혼생활에서의 갈등은 시집식구나 부인, 친정식구 즉 결혼전 가정과의 유대관계이다. 22세~28세는 부부로서 정이 익어가고 새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입원과 직업에서의 보수간에 조화를 이루는 시기다. 결혼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느정도 경계선이 뚜렷해지기 시작한다. 29세~31세는 일과 결혼생활과 부모역할로 인한 불안과 갈등이 있게 되고 따라서 부부간에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여 재평가가 필요하다. 각자 자기의 '성곽진입'에만 몰두하게 되어 결혼외의 생활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다. 32세~39세는 부부간에 깊은 관여로 안정으로 접어가는 시기 그리고 결혼생활의 장기목표를 설정하는 시기며 결혼생활이 성공적인지 성공적이지 아닌지를 구분 결정되어지는 시기다. 그리고 가정의 결정권이 완전히 성립되어 한 형태가 나오게 된다. 40세~42세는 개인성공으로 결혼생활에 머무르는 것이 고민스럽고 갈등으로 느껴 타인과의 교체시도를 환상해 보는 시기다. 43세~59세는 결혼생활의 재정립 질서 확립시기다. 갈등은 해결되고 젊은 시절에 대한 애착은 우울로 변하며 특히 자녀가 모두 결혼 또는 독립으로 집을 떠남으로써 '빈둥우리 지키는 새'와 같은 고독에 젖어들게 된다. 60세 이후는 부부간의 성생활 퇴행과 배우자 죽음, 질병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다.

어떤 형태의 부부관계이든 어떤 시기에 놓여

지면보수교육

있건간에 가정을 평화스럽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부부의 최대 목표일 것이며, 이런 가정의 평화는 부부의 일치없이는 어려울 것이다.

부부 일치

우선 부부일치의 意義를 살펴보아야겠다. 아이들을 잘 기르는 최선의 방법은 아내(남편)를 사랑하는 것이요, 아이를 잘 기르면 가정복지는 시킬로 이루어진다고 보겠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사랑인데 이것은 부부가 일치되지 않고서는 일방적 사랑만 가지고도 어려우며 서로가 주고 받을 때 사랑의 합일점이 자녀에게 좋은 교훈으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부부일치에 장애를 받는 요소는 너무도 많은 것 같다. 1958년 스페인의 칼보, 가브리엘 신부가 사회문제아를 다루는데 이 아동들의 문제점이 가정에 있었고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사랑이 없고 일치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에 착안하여 부부 7쌍을 대상으로 대화를 하도록 시작하여 결혼한 부부일치 운동을 일으킨 Marriage Encounter가 있다. 이것이 이제는 33개국으로 전파되었고 우리나라도 1977년도 부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부부일치의 장애요소는 곧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그 신호는 대화와 의사소통이 사라지면서 나타난다고 보겠다. 곧 커다란 장애요소가 의사소통의 문제점인 것을 알게 되며 이것이 원활히 안될 때 부부간에 갈등으로 변하여 부부싸움 시기로 넘어간다. 그러나 부부싸움도 일종의 의사소통이므로 오히려 무관심보다는 좋다. 다만 금지해야 되고 지켜야 될 규칙위반만 안하던 오히려 바람직한 것 같다. 즉 부부싸움의 규칙과 명심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그러므로 냉정시기 보다는 낫다. 승부를 가리지 말라. 이겼다고 졌다고 승부 때문에 통쾌하거나 불쾌할 배우자는 없다. 싸움 그 자체가 불쾌하면 불쾌한 것이다. 불이 붙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라. 과거지사 반복해서 지

금 왜 싸우게 되었는지 주제는 잊어버리고 억울하고 분했던 과거 얘기의 메아리가 되서는 안된다. 상대방을 도육하는, 예를 들면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언성을 높이지 말아라. 그것은 너무도 아픈 기억으로 생생하게 된. 다손을 잡고 싸우라는 옛 선인들의 부탁도 있다. 되도록 48시간 이내로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싸움의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부부일치에 도움이 된다. 이런 대화의 문제말고도 장애가 되는 요소는 각자의 경험과 결혼생활 양식에 따라 각각 다른 것으로 안다. 예를 들면 일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남편에 대한 불만, 의논없이 일을 혼자 결정했을 때, 혼자서 취미생활을 즐길 때, 그 형태는 다양각색이나 공통되는 것은 의사소통의 결여라고 할 수 있겠다.

장애요소만 피한다고 부부일치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적극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서로가 배우자가 또는 내가 느낀 바를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내가 배우자로부터 받은 어떤 느낌에 대해 솔직하게 서로 대화를 자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서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중요성이 매우되리라 생각한다.

부부의 역할

훌륭한 부부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함을 미국의 Chuck Gallagher는 그의 Matrimony 라는 책에서 10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째 로맨스의 유지다. 부부는 서로 연인역할을 결혼전과 같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라는 말은 잊어버려야만 될 것이다. 당연한 '나의 자기'로써 부부는 마치 비판의 권력만 생긴듯 착각하기 쉽고 사랑의 표시는 멀어지고 흠을 잡고 비판하는 일이 더 강해질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한다. 다음에는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일이다. 서로가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 한다는 것이다. 서로가 지

것대 역할을 해야 되며 그 밑에 바탕이 되는 측면(삼각형을 상상하십시오)은 자녀로 보고 양측의 지렛대가 서로 만나지 못하면 삼각형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다음의 요소는 경청의 훈련이다. 우리는 어린이가 메아리를 듣고 “입김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소리쳐야 할 줄이 있어야 한다. 배우자라는 술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자기를 스스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배우자를 신뢰해야 하는 것이 다음 역할이다. 신뢰는 대화의 열쇠라고 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서곡이며 우주적인 인간성숙을 가져오는 전주곡임을 알아야 한다. 끊임없는 격려와 칭찬, 위르자가 되어야만 부부간의 일치는 오는 것이다.

다음은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결심이다. ‘사랑의 결심’은 행동자, 실천가, 사랑의 성취자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음의 요소는 언어나 두언의 대화 기술을 훌륭히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에게 정보를 주고 정보를 얻어 교환, 수정, 분석, 소득이 있는 정보센타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느낌의 표현은 의사소통의 기본적 핵심이다. 부부가 배우자에게 느끼는 어색한 감정을 마치 땀뻗힌 선감의 맛과 같다고 표현해 보면 빨리 서로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무대에 선 배우의 대사와 같은 감정표현이 가끔 필요한 것이다. 해놓을 수 없는 서로의 역할에서는 성생활이다. 성생활은 훌륭한 오케스트라와 같은 협조가 필요하다. 성행위는 훌륭한 이중창이 또한 되어야 한다. 불협화음이 된다든지 solo 가 된다든지 해서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열등감을 느낀다. 화음이 잘 될 때 서로가 격려되고 용기가 생긴다. 사춘기 때 읽은 성에 관한 책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 청교도적 생각을 만들 수도 있고(20대에) 30대에 가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으며 또는 생활의 혼란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마음의 자세다.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용서를 부부가 때문에 할 수 있는 경우는 많다.

일마전 어떤 모임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당신이 배우자를 제일로 여기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 모임에 모인 사람이 한결같이 대답하는데 두 번째 혹은 첫 번째 이유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다. 아이들이 이다음 성장해서 우리 부부를 닮아서 우리가 하는 부부역할을 그대로 본받을 텐데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배우자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 주므로써 자녀들의 좋은 부부관계를 갖도록 해주기 위해서다” 두말할 것 없이 아이들의 행위나 사고는 부부의 거울과 같은 것이다. 자녀와 부부가 가정의 요소며 가정의 복지는 결국 이 양자간의 좋은 표양 본보기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가정하였을진대 부부의 역할은 너무도 당연하게 고려되어야 할 가정의 문제 나아가서 사회복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부부역할의 중요요소를 지지하는 방법인 대화의 개선, 증진, 유지는 조금씩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며 즉시적 발전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에 적어도 한번씩은 서로가 조용히 자신들만의 문제를 10분씩 생각하고 대화하면 좋겠다. 직장으로 전화를 건다든지 퇴근 후 자녀들과 시간을 갖는 것을 마친 후에 부부시간을 가져서 대화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가정의 복지는 이처럼 부부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부부간에 행복한 웃음의 꽃봉오리는 자녀에게 반발한 꽃송이를 안겨주는 것이 되며 이로써 그 가정에는 꽃의 향기로 덮여있게 되고 그 가정을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꽃향기에 심취하여 마음이 평화스럽고 자신의 가정에도 꽃향기를 풍기려는 의욕, 무엇인가를 배워가지고 가게 되므로써 하나 들 꽃향기에 둘러쌓인 가정이 늘어날수록, 사회 복지도 형성되리라 생각한다. ❀